

“봄의 활력을 발레로 깨우다”... ‘Voice of Spring’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살롱콘서트 I

내달 21~22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발레뤼스 레퍼토리 재구성해 초연 박경숙 예술감독 총연출·해설 선배 “아름답고 우아한 앙상블의 향연”

봄의 활력을 화려한 발레의 예술적 움직임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된다.

18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총연출과 해설을 맡은 기획공연 발레살롱콘서트 I ‘Voice of Spring’은 광주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다음달 21~22일 개최된다.

기획공연 시리즈 ‘Voice of Spring’은 광주시립발레단이 매년 첫 공연으로 선보이며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깊이 감상할 수 있는 발레 무대로 손꼽힌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현대발레의 효시로 꼽히는 ‘러시아 발레단’이라는 뜻의 ‘발레뤼스’다. 1909년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세운 발레단으로 20년간 활약하며 발레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클래식 발레의 매너리즘에 돌파구를 찾고 있던 발레를 당대 예술계의 수많은 천재와 협업해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한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이번 공연을 발레뤼

스의 제1기에 해당하는 레퍼토리로 미하일 포킨이 안무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남자 요정을 등장시킨 ‘장미의 정’, 에로티시즘을 강조하는 ‘세헤라자데’, 이국적 생기가 넘치는 ‘폴로비츠인의 춤’, 스트라빈스키의 존재를 알린 ‘불새’, 우아함이 돋보이는 ‘레 실피드’ 등 총 다섯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첫 무대로 선보일 ‘장미의 정’은 테오필 고티에의 시 ‘나는 장미의 요정, 어젯밤 무도회에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었다’에서 떠오른 영감이 배경이 돼 베버의 왈츠 ‘무도회의 권유’를 베를리오즈가 교향곡으로 편곡해 사용한 작품이다. 무도회에서 한 송이 장미를 받아 돌아온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잠들어 꿈속에서 장미의 정령과 함께 춤을 춘다는 동화 같은 내용이다.

이어 옛 페르시아의 이국적인 현란함과 신비로운 의상, 무대장치가 돋보이는 ‘세헤라자데’가 공연된다. ‘천일야화’를 소재로 립스키코르사코프가 작곡한 발레극으로 유럽의 예술, 패션, 건축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전무후무한 영향을 준 작품이다. 열정적인 안무와 화려한 디자인이 발레뤼스의 단골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에도 관객들의 호응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폴로비츠인의 춤’은 공작 이고르가 유



지난해 3월8~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발레단의 ‘Voice of Spring’ 공연 무대.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목민족을 정벌하려다 포로로 잡힌 뒤 탈출하기까지의 사건을 그린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 2막에 나오는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포로로 잡혀 침울한 생활을 보내는 이고르를 위해 마련된 가무 잔치로, 귀에 익은 웅장하고 역동적인 음악과 진취적이며 호방한 전사들의 춤, 신비로운 여인들이 선보이는 애절한 춤사위가 절묘한 대비를 이루며 경이로운 장면을 연출한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를 예술계에 각인시킨 작품으로 유명한 ‘불새’는 러시아의

옛 전설을 소재로 러시아적인 색채를 짙게 풍기고 있다. 환상적이면서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관객들로부터 매혹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마왕 카스케이의 나라에 도착한 이반왕자가 우연히 불새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신뢰와 사랑을 다룬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선보일 무대는 불새와 이반왕자의 첫 만남을 그린 2인무로 불새의 몸짓과 표정 연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지막 작품은 ‘레 실피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즐거움 없이 오케스트라에 의

해 연주되는 쇼팽의 짧은 피아노곡들로 구성됐다. 곡에 맞춰 앙상블·솔로·듀엣 등으로 나뉘며 달빛이 비치는 숲속의 꿈같은 장면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동감과 에너지 넘치는 춤과 음악으로 봄을 여는 광주시립발레단의 첫 공연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관객들은 발레단이 준비한 고도의 기술과 함께 연극적 요소가 아우러진 극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재능과 열정 갖춘 청년예술가 모이세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참가 모집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

청년예술가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청춘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페스티벌’을 주제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 위의 종합예술, 마을 문화 축제제’로 확장될 방침이다. 공연은 전라·제주권 내 문화환경 취약지역과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소통하며 함께 완성하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로 기획된다.

특히 올해는 제주 청년예술가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제주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전라권에서 공연할 경우 이동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제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라·제주

권 운영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한 ㈜국성이 선정돼 지역 특색을 살린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예술가 공모는 1985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19세~39세의 대한민국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무대 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가 지원 가능하고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사와 2차 실연 오디션을 통해 전라·제주권에서 총 50팀 내외의 청년예술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최소 5회 이상의 공연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공연 횟수에 따라 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접수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공식 이메일(mic00123@naver.com)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2025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블로그(https://blog.naver.com/ymic-j) 및 인스타그램(@youngmic_youth_parra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시다래 동인시집 제9호 ‘아뽀싸, 그때 무슨 일이’ 출간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념 특집

시다래 동인들이 펴낸 동인시집 제9호 ‘아뽀싸, 그때 무슨 일이’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시들이 담겼다. 강대선 시인의 ‘오감역’, 오소후 시인의 ‘전일마루’의 1편이 초대사로 상재됐고 김정현 시인의 시 9편 등 총 84편이 수록됐다.

오소후 시인과 강대선 시인의 지도로 매년 시인들의 동인시집을 발간해 오고 있는 시다래 시동인 회원들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로 제9호를 발간하고 출간 기념회를 지난주 가진 바 있다.

시다래 시동인의 지도교수 오소후 시인은 2001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문득 도리포에 이르러’로 등단하며 광주 지역 중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에릭사티와 흰돌을 명상하다’ 등 시집 5권을 출간했고 번역 시집으로 ‘나는



시다래 동인들은 지난주 동인시집 제9호 ‘아뽀싸, 그때 무슨 일이’ 출간 기념회를 가졌다. 시다래 동인 제공

꽃(I'm a flower)을 출간했으며 한국예술평화명인 지정과 제1회 김현승시낭송대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다래 동인의 창설자이면서 시지도 초대교수를 역임한 강대선 시인은,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박찬 기자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 워크숍

25·27일 무안·순천서 열려 334건 선정... 20억 규모 지원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 선정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된 가운데 선정된 단체와 예술가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무안 남악 복합주민센터 공연장, 27일 오후 2시 순천 전남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선정단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18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

모는 시각, 공연,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 984건이 접수된 가운데 6개 사업에서 334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예술활동지원 301건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14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6건 △창작공간지원 5건 △자율기획형(경계없는 예술) 3건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 5건 등으로 총지원 결정액은 20억3500만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교육, 예술인 고용·산재보

험 및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상담, 홍보 분야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결과 및 워크숍의 내용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www.jncf.or.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061-280-582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